



겨울비 사이로 노란가을은 가고 광주·전남지역에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린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보도를 뒤덮은 노란 은행잎과 행인의 빨간 우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생명과학 II 선택 수험생 4000명 등급 상승할 듯

■ 수능 생명과학 II·영어 복수정답 인정 희비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변수·정시도 대혼란

영어는 기존 정답자 많아 영향 크지는 않을 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II 8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기대를 희망하는 최상위권 이과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생명과학 II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과목인데, 복수정답 인정으로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정시모집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또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생명과학 II를 응시한 광주 수험생은 219명, 전남 수험생은 36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이과생들로 서울대와 의대를 희망하고 있다.

생명과학 II 8번 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된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은 오히려,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인 ④번이나 오답을 고른 수험생들의 성적은 반대로 떨어지게 됐다.

이는 ④번을 맞춘 수험생보다 ②번을 고

른 수험생들이 5배가량 많아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평균점수가 1.3점가량 오르고, 1~2등급의 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2점 상승하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이 이렇게 등급이 상승한 수험생들을 예측한 결과, 유웨이중앙교육은 3600여명, 이투스정승은 4000여명, 진학사는 3400여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②번 이외 번호를 고른 수험생 중 기존 1~3등급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인원은 유웨이중앙교육 350여명, 진학사 1800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등급 변동에 따라 대학이 요구하는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에서는 상위권 대학이 과학탐구를 표준점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에 근거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어 복

수정답 인정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수학 B형과 과학탐구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는데 수학 B형이 워낙 쉽게 출제돼 과학탐구 성적에서 당락이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 II의 변별력마저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영어 25번 문항에 대한 기존 정답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아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성적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내다봤다.

유성우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는 “생명과학 II는 서울대와 의대를 희망하는 최상위권 이과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이다”며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탐구과목마저 변별력이 낮아져 입시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NS 사진 한 장에 들통난 절도행각

가방 분실 20대, 인스타그램 검색중 똑같은 사진 발견

경찰과 공조 게시물 이름·거주지 조회 석달만에 검거

“무심코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범행이 들통날 줄이야.”

가방을 잃어버린 대학생과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찰떡궁합’ 공조수사로 석 달여 만에 절도범을 붙잡았다. 자칫 완전범죄로 끝날 뻔한 절도 행각은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인증 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박모(20)씨가 가방을 분실한 것은 지난 8월

15일 밤 10시경. 친구들과 광주 시내의 한 클럽에 갔다가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애지중지 아끼던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40만 원을 주고 박씨가 산 가방은 패스포트, 타이어, 자동차 안전띠 등을 재활용해 만들어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가방’이다. 박씨가 기필코 ‘내 손으로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를

? 해시태그(Hash Tag) 트위터 등 SNS에서 사용되는 표기 방법으로, 해시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볼 수 있다.

불태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클럽에서 잃어버린 가방은 1주일 여 지난 뒤 북구 운암동의 한 술집에서 발견됐다. 박씨의 친구가 우연히 같은 술집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한 남성을 목격하는 것이다.

박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광주동부경찰에 알렸고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박씨도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토크, 페이스북 등 SNS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한 박씨는 경찰에도 자신의 ‘수사 비법’을 전수했다.

경찰과 박씨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

(Instagram)에서 동네 이름을 검색하면서 게시물 읽던 중 잃어버린 가방을 메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을 발견했다.

바로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21)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방’을 메고서 찍은 사진을 올렸던 것이다. 절도범 김씨는 특히 동네 이름을 사진과 함께 올린 탓에 인터넷상에 그 정체를 쉽게 드러냈다.

경찰은 게시물 이름과 거주지를 조회해 지난 23일 김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그는 “흠처간 게 아니라 쓰레기통 주변에 가방이 있기에 주워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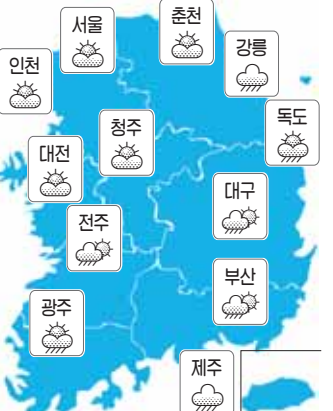
해돋이 07:16 달출몰 09:32
해진 17:22 달지름 20:08

오락가락 겨울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9/14	보성	비온뒤 맑	9/14
목포	10/14	순천	맑음	11/14
여수	11/14	영광	맑음	7/14
나주	7/15	진도	맑음	10/14
완주	10/14	전주	비온뒤 맑	7/14
구례	9/14	군산	비온뒤 맑	7/14
강진	10/14	남원	비온뒤 맑	8/14
해남	10/14	홍산도	맑음	11/13
장성	6/1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0.5~1.5
	면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면바다	북~북동	2.0~3.0	북동~동	2.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8:49	03:35	21:27	16:18
	11:37	04:55	23:44	17:44

◇생활지수

식중독	39
운동	20
빨래	20

◇주간 날씨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12/1(월)	2(화)
7/15	3/15	6/12	7/14	4/12	7/12	1/6

담양 펜션화재 참사 실소유주 최씨 구속...사망자 1명 추가

담양 황도휴집펜션의 실제 소유주인 전직 기초의원 최모(55)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중 부장판사는 24일 담양경찰이 최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펜션 시설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고,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점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건축법 위반과 국

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의원인 최씨는 이날의 화에 사직 의사를 밝혀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됐다.

한편, 담양경찰은 펜션 화재 사고 당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던 김모(29)씨가 지난 23일 숨져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원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김수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약초보감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9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원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김수 | 정가 151,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원 | 서재걸·김달래·이광연 김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6-2069